

인류문명과 기록문화로의 여행



21세기 현생 인류는 이전과는 크게 다른 방식으로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다.

인류는 인류문명의 발달과정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그리고 더욱 발전된 기록방법(매체)을 개발·이용해 왔다.

그런데 인류는 21세기 들어서 지난 2000년 가까이 사용해 온 종이매체를 조금씩 멀리하고 디지털이라고 하는 새로운 매체를 사용하여 문명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인류는 언제까지 종이매체를 사용하여 인류의 지식·정보·경험을 축적할 것이며, 디지털매체 이후에 인류는 또 어떤 매체를 개발하여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

본 수업을 통해 우리는 [인류가 미래에 사용하게 될 기록매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미래 기록매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보기 위해 인류가 고대부터 현대까지 사용해 온 기록매체, 즉 [점토판](#), [파피루스](#), [양피지](#), [종이](#), [디지털매체](#)들의 특징과 [사용의 장단점](#) 등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인류의 기록문화를 동서양 그리고 우리나라로 나누어 지리적 그리고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